

SK證, J&W파트너스 품으로…"대주주 적격 심사 통과 못할 가능성 적어"

등록 2018.03.06 10:46:44



SK, 케이프컨소시엄과 7개월만에 계약 해지
인수금액 약 515억…"주가 조정 반영된 것"

【서울=뉴스시스】장서우 기자 = SK증권(001510)의 새 주인으로 사모펀드(PE) 운용사 제이앤더블유파트너스(J&W파트너스)가 떠올랐다.

SK증권의 지분 10%(보통주 3201만1720주)를 보유하고 있던 지주회사 SK(034730)는 지난 5일 지분 전량을 J&W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케이프컨소시엄과 맺었던 기존의 매각 계약은 해지됐다.

처분 금액은 515억3900만원으로 케이프컨소시엄이 SK와 체결했던 계약 금액보다 약 15% 하향 조정됐다. 이는 그동안 주가가 조정된 부분이 반영된 결과다.

J&W파트너스는 지난해 7월 SK증권 경영권 매각 공개 입찰에 참여했지만 케이프컨소시엄에 밀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케이프컨소시엄과 관련해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발목을 잡자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로 구성된 케이프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SK와 SK증권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해 9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심사는 자금조달 구조, 신용공여 위반 등의 문제로 6개월여간 난항을 겪었다.

이에 케이프컨소시엄은 지난달 초 인수 구조 변경 방안을 검토하는데 나서는 등 SK증권 인수에 적극 나섰다. 케이프투자증권을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시키지 않는 방안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케이프컨소시엄이 지난달 5일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자진 철회하면서 SK증권 매각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심사 실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을 일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달 만에 SK는 J&W파트너스와 새로이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J&W파트너스 역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함은 물론이다. SK 관계자는 J&W파트너스의 심사 통과 가능성과 관련,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전했다.

J&W파트너스는 SK증권의 기존 임직원에게 고용 보장을 일부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SK 관계자는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곳이라 생각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J&W파트너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완료된 후 매매대금이 납입되면 인수가 최종 완료된다. 이로써 2년여간 끌어오던 SK증권의 매각 절차가 완료되며 SK증권은 약 25년만에 SK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한편 SK는 2015년 8월3일 지주회사로 전환됐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SK는 SK증권의 주식을 처분해야 했다.

그러나 SK가 2년간 SK증권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 금산 분리 규정 위반을 사유로 주식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프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한 것도 법 위반 발생 시점 이후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suwu@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